



Implant를 이용한 상악 전치부 수복증례

나 영*, 곽 재 영, 허 성 주, 장 익 태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현재 implant 수복에 있어서 1stage surgery, immediate, early loading은 치료 기간의 단축, 이차 수술 비용의 절감,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의 빠른 회복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의 implant 수복은 심미성의 회복이라는 최우선 과제로 구치부 시술에 비해 임상가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 본 증례에서는 상악 전치부를 implant로 수복함에 있어서 immediate loading 및 delayed loading과 함께 각기 다른 보철 과정을 이용한 4 환자의 증례를 비교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 24세 여성 환자로 기존 전치부 bridge의 metal margin 노출로 인한 비심미성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12, 21은 각각 single PFG로 #11은 implant로 수복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11의 1st surgery 6개월 후 2nd surgery를 시행하였으며 2nd surgery시 stent와 self curing resin을 이용하여 인상을 채득하고 10일 후 s/o시에 최종 보철물을 delivery하였다. 수차례의 r/c 결과 양호한 심미성의 유지를 보였다.
- 31세 여성 환자로 #12의 신경치료 과정에서 치아의 변색과 통증을 호소하며 본원으로 내원하였고 X-ray 소견상 horizontal root fracture가 의심되어 발치 후 implant 식립이 계획되었다. 잔존 치근 발치와 동시에 4.0*15mm RBM implant를 1stage로 식립 하였으며 10일 후 s/o 시 인상을 채득하고 2주후 최종 보철물을 delivery하였다. 양호한 심미적 결과를 보였으며 환자는 만족하였다.

- 38세 여성 환자로 #11-12, #21-22 splinted crown의 diastema를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기존 보철물 제거 후 eval결과 #11, 12가 hopeless로 판명되어 #11, 12는 발치 후 implant, #21, 22는 PFG로 재수복하기로 계획하였다. #11, 12 발치 후 RBM 3.75*15mm로 식립하고 6개월 후 2nd surgery를 시행하였으며 1개월 후 tray 제작을 시작으로 보철물 제작에 들어갔다. #11, 12 Implant splinted crown, #21, 22 splinted crown의 최종 보철물을 delivery하였으며 양호한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20세 여성 환자로 교정 후 #22 선천적 결손에 대한 수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space arrangement로 #12는 porcelain laminate veneer로 수복하였고 #22는 1st surgery시 러버뎀 방습과 함께 인상을 채득하였고 10일 후 s/o 시에 임시금관을 delivery하였다. 1개월 후 r/c시 gingival recession과 함께 interdental papilla의 소실을 보여 추가적인 연조직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4가지 증례에서 1stage surgery 및 immediate loading시에는 골 및 연조직 소실을 예상한 좀 더 주의 깊은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악 전치부의 implant 수복 후 지속적인 r/c로 그 심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